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제 8학기 서울성경대학 개강

평생 성경공부 과정인 서울성경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함으로 말씀의 지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울교회 교육목적인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제8학기 서울성경대학을 개강한다.

강의 기간은 2000년 9월 18일부터 11월 23일(10주간)까지이고 입학금은 과목당 만원이며, 접수는 서울교회사무국에서 받는다.

◆강좌, 강사,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강좌	요일 시간	강사	강의실
지도자양성반 *다락방장반	수, 오후 1시	이종윤 목사 외	403 강의실
	수, 오후 8시 30분		
	목, 새벽 6시		
에베소서반	월, 오전 10시 30분	이성득 목사	403 강의실
호세아서반	화, 오전 6시	고경선 목사	403 강의실
요한계시록반	화, 오후 7시 30분	정윤돈 목사	
음악교실반	목, 오전 10시 30분	허희철 집사	403 강의실
	목, 오후 7시 30분	이연숙 권사 안진희 선생	

멀티미디어 봉사단 출정식을 갖다

지난 17일 멀티미디어 봉사단(단장 조철기 집사) 출정식을 갖고 조직과 사업계획을 세웠다. 봉사단은 목회지원팀, 교육자료 개발팀, 매체선교팀으로 조직을 편성하고 각각 팀장과 서기와 회계를 임명했다.

봉사단의 첫번째 과제는 교회내 각 부서별로 열려있는 홈페이지를 일단 서울교회 홈페이지로 통일하고 각 부서별로 클릭하여 들어가도록 하는 일과 멀티 화상 설교를 국내외적으로 연계하는 사업, 교적관리, 전자도서관, 그리고 교육 시청각 교재 개발과 음향실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내어 놓았다.

이날 이종윤 목사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효과적인 목회를 하도록 봉사단의 끊임없는 지원을 요청하면서 기술적인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2000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 각 부서별 모임 갖다

열린바자를 위한 각 점포별 모임을 갖느라고 교회가 부산하다. 지난 주간동안 각 점포 사장들은 바자를 위한 점포별로 모임을 갖고 기증품과 판매할 품목을 의논하고 정하였으며 목표금액 달성을 위한 대책을 세웠다. 또한 열린바자와 건축헌금을 위하여 교구별로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열린바자를 위한 뜨거운 열기가 오즈옴의 더위만큼이나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지난주 모임을 갖은 점포는 10점포를 선두로 9개 점포가 모임을 갖었으며 나머지 점포는 이번주에 모임을 갖기로 날짜를 정하여 놓았다. 지난 주 주일에는 사장들의 추천으로 식당 운영권이 9월 6일은 1, 7, 8, 10점포, 9월 7일은 3, 4, 9, 12점포, 9월 8일은 2, 5, 6, 11점포가 결정되었으며 식당운영 수익금은 각 점포별로 분배하여 건축헌금으로 드리게 된다.

◆지도자 양성반 (다락방방반)

- 1. 커리큘럼 및 시간운영계획
- 2. 일시, 시간표: 수요일 오전반/ 수요일 오후반/ 목요일 새벽반/

순서	행위시간	1교시	분 반	2교시	참 고
1강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자의 도 강해설교 (이종윤목사)	출석확인 및 신앙점검: 1. 성경읽기 2. 중보기도 3. 전도실천 4. 이웃관계 5. 시간관리	교회의 사명 이성득목사 / 9.20	교회론 입장
2강				신약개론 이규정목사 / 9.27	성경을 보는 시각 키우기
3강				영적전쟁 고경선목사 / 10.4	
4강				언어와 예절 이성득목사 / 10.11	바른 심방 태도
5강				성령의 열매 지혜영전도사 / 10.18	성숙한 신자 만들기
6강				이단연구 이규정목사 / 10.25	개척 및 관리
7강				참된예배 이성득목사 / 11.1	
8강				종말론 정윤돈목사 / 11.8	
9강				전도의 사명 이규정목사 / 11.15	
10강				중보기도 고경선목사 / 11.22	중보기도 네트워크

◎ 수요일 1·2부 찬양대 연습시간은 LTC 기간동안은 예배전시간을 주로 활용한다.

◎ 지도자 양성반 강의가 있는 10주동안은 수요일 1·2부 및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 설교는 제자의 도에 관하여 한다.



히스기야의 감사

성경 : 이사야 38장 9 ~ 22절



이중운 목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여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1. 병중에 있을 때를 회상하는 히스기야

(1) 그는 죽음을 각오했다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그때는 청년의 때를 막 벗어나 중년의 때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는 하필 이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래 살기 보다 별세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시 17:15, 116:15, 사 57: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중년에 죽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1절에서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의 뱀을 피하지 못하겠기 때문에 죽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현세에서 하나님과 교체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계시를 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좀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기 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유감인 것은 또한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서 좀더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그는 슬퍼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남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자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히스기야는 불원간에 다가올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목자의 장막을 걷음 같이'(12절). 장막은 임시 처소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장막집의 무너짐'이라고 했습니다(고후 5:1). 육체의 생명은 장막과 같아서 목초가 없어지면 목자가 장막을 거두어

옮기듯이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12절). 직공이 베를 다 짜면 베를 걷어 마는 것과 같이 이미 짠 베는 베틀에서 끊어지듯 생명은 현세에서 끊어지고 말리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끊지 않으면 생명은 끊을 자가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중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자가 먹이의 뼈를 쥐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아픔을 느끼며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2) 병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제비나 학이 지저귀는 소리는 무슨 뜻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슬픈 소리입니다. 사람이 형편이 극도로 절박해지면 말을 이루지 못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으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14절). 히스기야는 말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그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질병으로 압제를 받는 만큼 자기를 도와주시며 위로해 달라고 했습니다.

2. 히스기야는 고난이 유익할 것을 믿었다

고난이 주님 모르시게 온 것이 아닌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15절). 고난은 우연이 아니므로 고난 당한 자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변론함이 됩니다. 읊도 고난을 당했을 때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읍 40:4).

"내가 종신도록 방황하리이다"(15절). 방황한다는 것을 바르게 번역하면 '조용히' 혹은 '평안히' 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을 진정한 살길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평안하면 모든 악습에 사로잡힙니다. 히스기야는 병중에서 고통이 심하였으나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 일생을 평안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을 겪

손히 당하면 몸의 생명 뿐 아니라 죄까지 사하여 주십니다(17절). 영적 평안을 얻으며 사죄 받는 자의 행복은 무엇이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미 7:18).

3.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의 감사

히스기야의 생의 목적은 오직 쉬지 않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한 것은 그에게 이와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기 위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자의 둘째 목적은 자녀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19). 히스기야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그 후에 느닷내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선지자의 책임이며 제사장의 책임이고 왕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는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병 회복의 기적을 체험한 그는 성전 예배와 찬양을 종신토록 하겠다고 합니다(20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한 뭉치 무화과'를 종처에 붙이라고 했습니다(20절). 물론 무화과가 약이 되어서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무화과를 붙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낮게 하실 때에는 무화과가 그 종처를 낮지 못하게 하여도 낮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넘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웃에게 봉사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농촌전도 대회를 마치고

"맘흘리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영희 전도사(유년부 지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 16:19)

많은 교사들이 수고하였다.

시간시간마다 재치있게 리드해 가는 선생님, 동글동글 모여앉아 조용히 듣는 아이들 앞에서 맘 흘리며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 둘! 하나 둘! 유치부 교사리들을 질서있게 이끌어 가는 선생님, 속이 쓰리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며 반주하는 선생님이 고맙고 대견하고 안쓰럽다. 아이들을 성경 공부에 참석시키실려고 그 힘든 발 일을 대신 해주시는 선생님들 모습에 머리가 숙여진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 유·초등부 어린

이들, 설령 한명 밖에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준비해 간 것으로 최선을 다하자고했던 우리의 다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함께 이 모든 이들의 노고는 교회학교를 성황리(?)에 이끌고 나갔다.

20여명 정도의 어린이들과 함께 여는 예배가 드러졌고, 그 후 선생님들과 정답게 손을 잡고 나가 전도하여 모인 총 수는 29명이었다. 이들과 함께 인형극 등 나머지 순서를 진행함으로 첫날을 마쳤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2일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이들 40여명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천국잔치 시간이 허락되었다.

농촌 봉사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순간부터 "어떤 교재를 택해야 할까?"하는 생각으로 교재 고르기에 고심한 끝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으로 결정 하였다. 유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퍼지 못하는 지역이기에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적절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교재에 예수님을 적절히 조화시켜 성경의 근원적 복음인 하나님, 예수님을 전파하기로 하였다. 저들의 영혼에 영과 생명인 예수, 그 분 존재가 말씀을 통해 심어 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시며 확증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현장에서 그대로 증명되었다.

너도 나도 다니엘과 같이 살겠다고 손을 드는 아이들을 추억하며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 생각하며, 이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 지기를 소원한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김성준 집사(10교구)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농촌 전도대의 한 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농촌 전도대 파송지역이 경북 예천군 상리면 소재 상리교회로 결정된 후 전도대 파송전 그 곳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리교회를 방문하였고, 각 분과별로 담당할 역할, 전도대원의 전도를 위한 훈련, 일자별 시간별 세부계획 등 복음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실천적이고 전격적이며 경제적인 철저한 계획이 이번 새천년 첫해 농촌 전도의 승전보를 울렸음을 확신한다.

시간과 몸과 마음의 열정을 쏟아 부으며 정성을 다하셨던 선발대, 퍼머와 컷트를 하시면서 설새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던 이·미용 봉사자들, 밀려드는 주민들에게 배고픔도 잊은채 정성스럽게 진료하시던 의료팀, 상리교회 설립 이래 최고 호황을 누렸던 교육분과, 골짜기 골짜기마다 누비며 1:1전도를 하시던 전도 대원들, 한정된 예산으로

전도대원들의 에너지 충전과 주민들에게 맛깔나는 음식을 제공할기 위해 애쓰셨던 취사 봉사자들은 셋째날 저녁 전도집회에서 길을 수조차 없이 힘든 몸으로 특송을 하여 많은 은혜가 되었으며, 김명숙 권사님의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춤춤씨가 절정을 이루게 하는데 한 몫을 하였다. 파송되었던 대원 한사람 한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한, 생산적인 3박4일이었다.

삼일째 저녁 전도집회 때는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결신의 시간 때 여기 저기서 오른손을 들며 이름을 대던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등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에 우리대원 뿐 아니라 그 곳 찬광환 전도사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사모, 이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하신 상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등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며 아멘, 아멘을 외치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감동의 물결이었다. 이번에 파송된 농촌 전도대원 모두가 돌아오는 자리에서 뿌듯했으리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37명의 결신자의 숫자가 아니라 상리면 4개 부락 주민들의 우리 전도대원들에 대한 친절환 반응과 전도집회에 참석한 71명의 주민이 모두 아멘을 외치던 그 순간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게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땀 잊지못할 것입니다

천정범 전도사(상리교회)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8일을 맞았습니다. 시간도 되기전, 8시부터 한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오전엔 7~8분이 더 미리오셔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이번 잔치에 어느정도 모이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전도대회의 막을 열기전 부터 비가 조금씩 내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박4일의 행사가 다 끝난 후 돌아와 보면 기대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찾아 주셨고 좋은 반응을 보여 주셨으며 그중 약 60여분은 전도 대상자 카드에 응해 주셨으며, 행사가 지난 첫번째주(8월 13일)에 일곱분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주에는 저를 비롯하여 스물한분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귀 교회를 통한 체계적인 조직하에서 성경학교 및

이·미용, 의료, 교회 지붕수리 등의 봉사 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식당에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봉사하셨던 모습들은 지역 주민들의 넋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의 위축되었던 마음의 어깨가 더 활짝 펴지게 되었습니다.위의 모든 일들이 주안에서 지체의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어져 사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고가는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더욱 힘을 내어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태신자 카드를 바탕으로 일로매진 할 것입니다. 식어지지 않는 열정과 담대함, 그리고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귀 교회의 성전건축과 주 안에서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주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서울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안녕히 계세요.

힘들고 외로울때 주님만을...

서준호(청년부)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여름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 안도전 받았던 문제들, 스스로 안고 있던 짐들을 주님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역시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의 만남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상만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꾸준히 새로운 진리를 찾으려는 지식인들의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장미빛 환상으로 다가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꼭 절대진리여야 하는가?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고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중 깨뜨려 주셨습니다. 너무나 오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세상 초등학문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낮선 곳에서 늘 혼자이고 모든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 해 주신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에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갈 때 또 공부하는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 고3을 위한 기도회 ◆

서울교회 고등부 3학년생들 진학과 취업을 위한 기도회가 오는 27일(주일) 11시 403호 고등부실에서 개최된다.

학부모 및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결연을 맺는다.

■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22일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 창립 76주년 전국대회에서 주제강연을 한다. 22일 오후에는 차녀 미영양 결혼식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 24일에는 새 예배당에 설치할 파이프 오르แกน 회사와 교회방문차 독일과 화란을 거쳐 30일 귀국한다. 이번 여행에는 오정수 장로가 동행 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관규집사, 이순영집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베드로 남선교회- 21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건축헌금 바칠 수 있도록
2. 건축 바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4.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오후 9시
새 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